

취임 2년 맞는 홍 문 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예산 해결되는 대로 나주혁신도시 이전”

-2008년 9월 17일 취임 후 농어촌공사가 추진한 경영선진화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 성과를 꼽는다면.

▲정부의 공기업 평가에서 2년 연속 A 등급을 받았다. 또 지난 2008년 2조6000억원이던 예산을 올해 3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나아가 새만금사업, 충남 당진 다비도 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광주댐 독 높이기 사업해도

수위 1.1m 상승 수몰 안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적합한 풍부한 농어촌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저수지 3333개소, 취입보 4141개소, 방조제 151개소 등 농업기반시설 주변의 다양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발전소를 만들 것이다.

오는 2016년까지 태양광 6개소, 소수력 57개소, 풍력 20개소의 발전소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만 소수력 발전소 6개소를 착공할 예정이다. 2016년 이후 연간 92만 가구의 1년 사용전력량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J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간척지의 무상양여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전남도에서 너무 욕심을 많이 내고 있다. 전남도와 공사, 정부 간에 생각이 다른 부분을 조화롭게 조율되도록 막후 철조하면 도민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업용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 중 광주댐의 경우는 가시문학 유적의 수몰위기 등으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는데.

▲현재 25.5m인 제방을 약 2.1m 높이 588만㎡의 추가저수량을 확보하는 공사다.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제방이 2.1m 높아지므로 수위도 2.1m가 상승해 식영정과 환벽당 등 가시문학유적의 수몰을 우려하고 있으나 실제 수위는 1.1m만 상승하기 때문에 문화재 침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전남지역 저수지 가운데 50~60%가 1945년 해방 이전에 완공된데다 과거 설계 기준으로 만들어져 안전등급 C등급 저수지가 274개 D등급 저수지가 174개 등 전국에서 가장 많다. 노후한 농업기반시설 종합 관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전남지역은 농도로서 전국에서 농업기반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전국 농업기반시설의 21%에 달하는 규모다. 전남의 1042개 저수지 중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699개다. 노후 저수지에 대해서는 평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진단을 통해 보수가 시급한 시설을 우선하여 보수·보강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돼 있다. 추진 상황은.

▲직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청사 설계 등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그런데 공사를 옮기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이 상태에서는 1200억원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정부의 협의 중이다. 경기도 의왕의 현재 본사 부지의 용도변경을 해두면 예산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남지역 어촌 지역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선 진도군 가학리에 어촌마을 시범 모델개발 추진 중이다.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다목적복합화관, 워터, 농산물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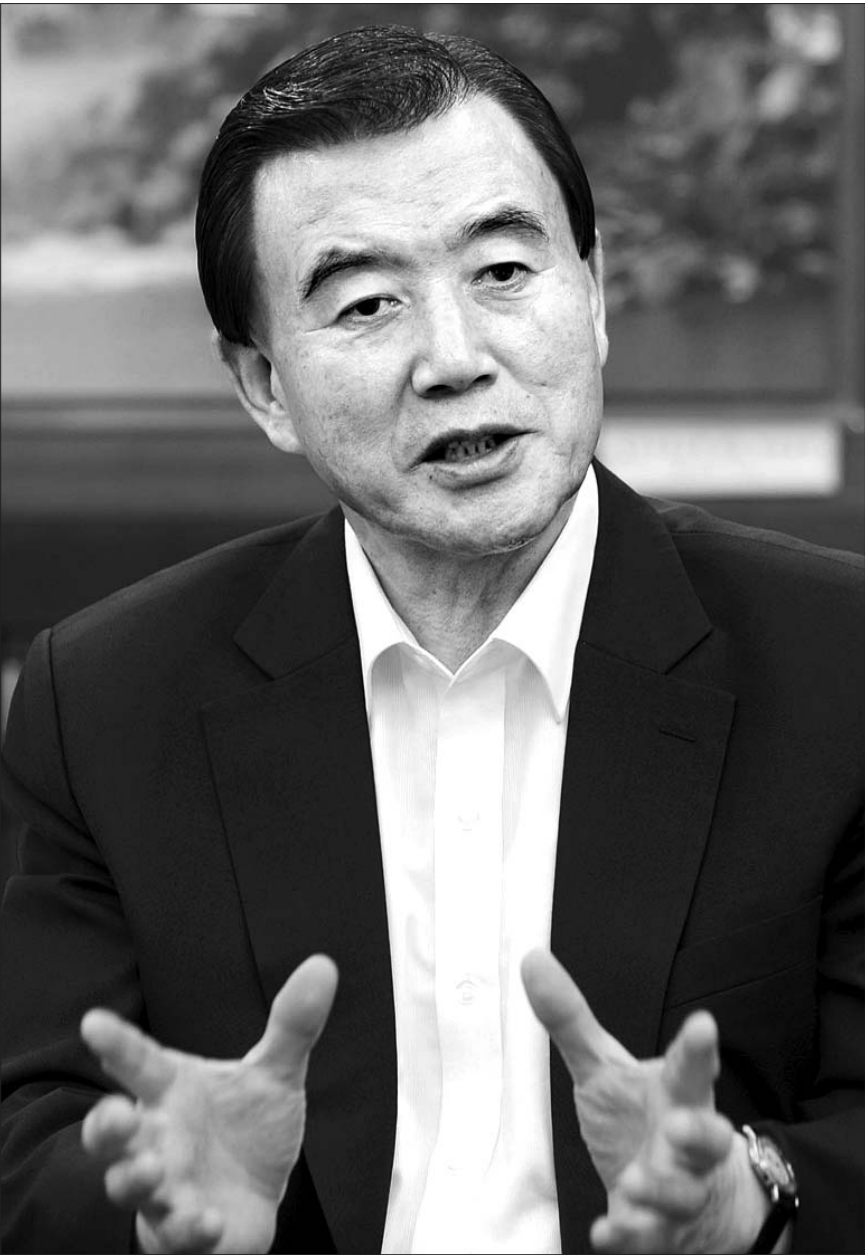
선심성 정책에 농어촌 명들이

출향인사들 고향애정 키워야

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서해안의 갯벌과 천일염, 순천만 갈대 등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어촌마을 개발 추진 중이다.

-도농교류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잘 살아야 한다. 1차산업에 머물렀던 농어촌이 이제는 2,3차 산업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가고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방약초 재배단지를 만들어 확보한 한약재를 도시의 한약방에 직접 공급하고, 농어촌에 의료와 문화시설을 설치해주고 있다. 서울에도 대규모 농수산물직판장을 개설,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특산물을 팔아주고 있다.



-향후 공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먹거리생산기반을 완벽하게 조성할 것이다. 현재 쌀 자급률은 96%지만 보·콩·옥수수·밀 등은 5%도 안 된다. 이 자급률을 2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밭의 기반 조성사업에도 신경을 쓸 것이다.

해와농업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생산만 했는데 이제는 가공사업까지 할 것이다. 한국 농업을 현지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농어촌을 동등적 시각을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심정책으로 일관, 농어촌을 명들게 했다. 이런 시각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출향인사들이 중요하다. 농어촌에 대한 애정 어린 시각이 필요하다.

▲1947년 충남 홍성 출생
▲서울 한영고, 건국대 농화학학과 졸업
▲한나라당조직담당 사무부총장
▲17대 국회의원(홍성·예산)
▲17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

우선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2~3일에 한번씩은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한 달에 한번 이상 직접, 방문 농사일을 거들면서 농어촌 변화에 직접 나서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북한 쌀 얼마나 줄까

10만t이상 희망 관측...당초 100억보다 늘어날 듯

북측의 수해지원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핵심은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지, 그리고 어떤 품목이 포함될 지 여부다.

정부는 일단 ‘쌀, 시멘트, 중장비’ 지원을 적시한 북한의 요청을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쌀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다. 대북 전문가들은 한적의 당초 지원계획에는 쌀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측의 요청을 감안할 때 지원품목에 최소한 쌀은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문제는 얼마나 줄지다.

북측이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 간 대결 국면에서도 ‘자존심’을 뒤로 하고 쌀 지원을 요청했다면 최소한 10만t 이상의 지원은 내심 바라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 차원에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거의 매년 30만t 이상의 쌀을 북측에 제공해왔고, 북한의 핵심원이 있었던 2006년에도

한적을 통해 대북 수해지원용으로 쌀 10만t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최근 남북이 수해지원 제의, 대승호 송환 등 서로 ‘좋은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당장 대규모 쌀 지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직 천안함 사태와 비핵화에 대해 우리측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성의있는 조치’에 대해 북측의 화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엔 한적의 대북 수해지원 품목에 쌀이 포함되더라도 최대 수 만 수준에 머물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북 수해지원에 쌀과 시멘트 등이 포함될 경우 지원규모가 당초 한적이 밝힌 100억원보다 확대될 수도 있다. 수해지원 성격상 지원품목에 한적이 당초 계획했던 생필품, 의약품 등도 빠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쌀에다 시멘트, 생필품, 의약품 등이 모두 포함되면 한적이 계획했던 100억원으로는 모자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연합뉴스

야 4당 대북 쌀 지원 촉구결의안 발의

정지권의 쌀 대북지원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 4당은 7일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은 결의안에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쌀 40만t을 즉각 북한에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은 식량난이 가속화돼 1990년대말과 같은 대량 아사사태가 우려되는 반면 우리는 쌀 재고량 증가로 농촌경제의 기반이 와해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북 쌀 지원은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고, 국내 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색된 남

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1석3조의 효과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8일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의 수해지원 요청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라며 “특히 쌀 지원 문제는 정부도 긍정적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도 이날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태도) 변화의 조짐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면서 “대북 쌀 지원부터 속히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일 개막 대우증권 클래식

홀인원 하면 쌀 400가마

10일 개막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우증권 클래식이 이색 홀인원 상품을 내걸었다. 대회 타이틀스폰서 대우증권은 인천 스키야72 골프장 하늘코스(파72·6474

야드)에서 사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 12번홀(파3·177야드)에서 홀인원이 나올 경우 쌀 80kg 등이 400가마를 준다고 8일 밝혔다.

쌀 400가마는 소매가로 무려 8000만원 어치에 이른다. 대회 주최사는 국내 쌀 소비량 증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가로부터 직접 쌀을 구입했다.

그러나 홀인원을 했다고 해서 쌀 400가마를 선수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주최측이 ‘대우증권’ 명의로 유니세프에 기부한다. 선수는 페르세데스-벤츠 승용차 1대를 선물로 받는다. 대우증권은 홀인원이 나오지 않아도 쌀 100가마를 기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은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팀)공공청 삼일로: 02-2278-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02-3477-5110 종로2가점(공정관청): 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양점(구 시민화관): 031-421-2288 부평점(부평역): 031-617-5110 수원점(남문): 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일2001):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031-658-5110 용인점(용인테크리): 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 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032-039-4400 부산 서면점(서면포리): 051-818-8800 서면A점(서면A): 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정관청): 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7-6060 진주점(구 동명국정): 055-745-9870 창원점(한마일병원): 055-284-0555 대구 동안점(동안테크리): 053-425-4440 삼척점(삼척테크리): 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053-425-7575 경북 포항점(포항테크리): 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내거리): 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 도정): 062-225-5110 광주점(백운동점): 062-8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시장거리): 061-752-8845 전북 전주시점(전북테크리): 063-632-5728 군산점(구 시청앞): 063-449-0198 익산점(북부시장거리): 063-838-5900 남원점(시장거리): 063-632-2020 대전 대전점(도청): 042-224-5110 대전점(충청로터리): 042-222-3389 대전점(대전역): 042-225-4900 울산 현안점(현안역): 041-653-2888 광주점(광주문사거리): 041-852-5110 충북 청주점(한계루): 043-222-1177~8 충주점(삼일로터리): 043-852-1414 김천 점점(죽전테크리): 033-647-0588 춘천점(철도청): 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명로터리):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기품질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GMP 의료기기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광주 구도청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동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